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

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
http://www.mke.go.kr

자료문의 : 최규종 전력진흥과장(2110-4660), 성보경 사무관(2110-4662)

8월 6일(월) 전기요금 평균 4.9% 인상

= 하계 전력수급과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을 고려, 필요최소한 인상 =
=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전의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 요구 =

요금조정

□ 지식경제부는 한국전력공사('한전')가 8월 3일 제출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인가해 8월 6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.9% 인상한다고 밝힘

○ 유류, LNG, 석탄 등 발전연료비 상승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10% 이상 되지만, 어려운 국내외 경제여건에 따른 산업경쟁력과 국민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, 하계 전력수급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필요최소한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내용임

□ 이번 전기요금 조정의 특징은 전력 소비량이 많아 에너지효율 개선이 필요한 산업용 고압요금은 6% 중폭 인상하되,

○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이 사용하는 산업용·일반용 저압 요금은 평균 이하인 3.9% 인상하고, 주택용·교육용 요금은 각각 2.7%, 3% 소폭 조정하는 내용임

○ 또한 지난 11년간 요금을 동결해 온 농사용 요금도 3% 인상하여 전 부문의 사용자들이 전력위기 극복에 동참한 의미를 가짐

< 2012년 8월 전기요금 용도별 조정률 >

구 분	평균	주택	심야	일반			산업			교육	가로	농사
				저압	고압	계	저압	고압	계			
인상률(%)	4.9	2.7	4.9	3.9	4.9	4.4	3.9	6.0	6.0	3.0	4.9	3.0

제도개선

□ 또한 합리적 전력소비를 유도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도 이번 전기공급약관 변경 내용에 포함됨

○ 주택용 부문에서는 자동판매기, 통신중계기 등 비주거용 고객의 누진 1단계 사용량(월 100kWh 이하)에 대해 1단계 요금단가 대신 2단계 요금단가를 적용토록 제도를 변경하였고 (11.1일 시행),

* 1단계 고객 중 비주거 주택용 고객은 약 42%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('08년, 한전실태조사), 구체 대상은 한전 추가 실태 조사 후 확정 예정

○ 산업용 부문에서는 기타사업* 사용자들의 경우 계약전력 300kW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산업용(갑)·(을) 요금의 선택권을 부여하였으나, 이를 폐지하여 예외없이 계시별 요금제가 적용되는 산업용(을)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합리적 전력 소비를 유도하였고(11.1일 시행),

* 기타사업 고객은 산업용 전력 적용 대상(광업·제조업)에 해당하지는 않으나, 정책적 목적에 의해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하는 사업 종

○ 농사용 부문에서는 농사용(을), (병) 요금제를 통합하고, 변경된 (을) 사용자 중 계약 전력 1,000kW 이상 대용량 사용자를 단계적으로 산업용으로 전환하는 등 요금 제도를 개편하였고(11.1일 시행),

○ 산업용(을), 일반용(을) 등 계시별 요금제(또는 피크요금제)를 적용받는 고객에 대해 토요일 중부하 요금*을 도입함으로써 평일부하를 주말로 이전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음(9.1일 시행)

* 토요일 최대부하 시간대 요금을 중부하 요금수준으로 감면

○ 한편 지난 2003년 조정 이후 동결해 온 표준시설 부담금 단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(11.1일 시행), 수요관리형 선택형 최대피크 요금제를 금년 동계기간에('12.11월-'13.2월) 시범 도입할 예정임

보완대책

□ 기초생활수급자·장애인·상이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최소전력 사용량(약 110kWh/월)을 계속해서 보장키로 하였음 (현행대로 월 8,000원 정액감면 하고, 차상위계층은 2,000원 정액감면)

* 형광등 5개, TV(30인치), 냉장고(600리터), 세탁기(10kg) 사용시 전력량

□ 또한 정부는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을 위해 전력 다소비 제품 효율관리 강화, 고효율 에너지절약형 전기제품(LED조명, 고효율 인버터 등) 보급촉진, 전력저장장치(ESS), 최대전력 관리장치 등 에너지고효율 제품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함

□ 한편 정부는 한전이 금년 중 추진키로 한 1.1조원(발전자회사 포함)의 자구노력과 별개로, 향후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 노력을 요구키로 함

기대효과

□ 지식경제부는 이번 요금인상을 통해 소비자 물가는 0.056%p, 생산자 물가는 0.128%p, 제조업 원가는 0.07%p 상승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,

○ 도시 가구는 월평균 1,200원(월 전력사용량 301.8kWh), 산업체는 월평균 32.7만원(월 전력사용량 5.9만kWh)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

□ 또한 금번 전기요금 조정을 통해 하계전력 피크를 약 85만kW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

세부 조정내역

1. 전기 요금 조정 수준

□ 전기요금 평균 4.9% 조정

< 2012년 8월 전기요금 용도별 조정률 >

구 분	평균	주택	심야	일반			산업			교육	가로	농사
				저압	고압	계	저압	고압	계			
인상률(%)	4.9	2.7	4.9	3.9	4.9	4.4	3.9	6.0	6.0	3.0	4.9	3.0

- **(주택용)** 금년도 예상 소비자 물가인상률 이하로 조정
- **(일반·산업용)** 산업용 고압요금 위주로 현실화 하되, 저압요금은 평균 인상률 이하로 조정
- **(교육용)** 교육계 부담을 고려 평균수준 이하로 조정
- **(농사용)** 갑·을 동결, 병(저압·고압 차등 조정)

2. 제도개선 내용

가. 농사용 요금 체계 개편

□ 농사용 요금은 원가회수율이 35% 내외에 불과하는 낮은 수준으로 농사용 전력 소비량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과소비 현상이 심화

* 농사용 전력 수요증가 추이

	'08년	'09년	'10년	'11년	'12년 상반기
농사용 전력	8.0%	9.0%	10.2%	5.4%	12.6%

○ 금번 요금 조정시 양곡 생산용도인 농사용(갑) 요금은 동결하되, 농사용(병) 요금은 저압·고압으로 나누어 각각 2.5%, 4.5% 차등 조정

□ 기존 농사용 전력 요금 체제(갑, 을, 병) 중 농사용(을), (병)을 통합하고, 농사용(을)로 명칭을 변경 운영하여, 요금 체계 단순화 (11월1일부터 적용)

* 현행 농사용 전력의 용도별 구분

구분	용 도	구성비	⇒	변경
갑	양곡 생산용(양수기, 배수펌프 등)	31.1%		갑
을	육묘·전조용	0.2%		을
병	기 타	68.7%		

○ 단, 체계 개편에 따라 기존 농사용(을) 사용자들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계적 감면 조치* 시행

* (1년차) 25% → (2년차) 15% → (3년차) 5%

□ 한편, 변경 후 농사용(을) 사용자들 중, 계약전력 1,000kW 이상의 대용량 사용자들의 경우 산업용(을) 요금을 적용하도록 용도 전환 (11월1일부터 적용)

○ 단, 생산자단체·어촌계(한미 FTA 관련 농사용 적용 확대 대상 포함)의 경우 기존대로 농사용 요금 적용하되, 체계 개편에 따른 급격한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계적 감면 조치 시행

* (1년차) 40% → (2년차) 20% → (3년차) 10%

나. 산업용 전력 기타사업 특례 제한

□ 산업용 전력 적용 대상 중 '기타사업'에 대해서는 산업용(갑) 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였으나, 선택권을 폐지하여 계약전력 300kW 이상의 경우 의무적으로 산업용(을) 요금에 따라 계시별 차등요금제 적용 (11월1일부터 적용)

○ 단, 체계 개편에 따라 기존 '기타사업' 사용자들의 급격한 부담 방지를 위하여 단계적 감면 조치* 시행

* (1년차) 10% → (2년차) 5%

다. 비주거용 요금적용 방식 개선

□ 주택용 전력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나 사용용도가 비주거 용도에 해당하는 경우, 월 100kWh 이하 사용량에 대하여 1단계 요금 대신 2단계 요금을 적용 (11월1일부터 적용)

○ 세부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실태조사(9-10월)를 거쳐, 추후 약관 세칙으로 확정할 예정

라. 토요일 중부하 요금제 시행

□ 토요일 최대부하시간대 사용량에 대하여 중간부하시간대 요금을 할인 적용하여, 평일 부하를 토요일로 이전하도록 유도 (9월1일부터 적용)

○ 토요일 중부하 요금제는 현재 계시별 요금제 적용을 받고 있는 산업용(을)·일반용(을)·교육용(을)에 적용

<현행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>

시간대 구분	시 간	1~9h	10	11	12	13	14	15	16	17	18	19	20	21	22	23	24h
	겨울철	경부하	중간	최대	중간부하						최대부하			중간		최대	경부하
	봄가을,여름		중간	최대	중간			최대부하			중간부하						

<개정 후 토요일 요금제>

시간대 구분	시 간	1~9h	10	11	12	13	14	15	16	17	18	19	20	21	22	23	24h
	겨울철	경부하	중간부하														경부하
	봄가을, 여름		중간부하														

마. 표준시설 부담금 단가 현실화

□ 전기 공급 신규 시설을 증설 투자재원에 소요되는 시설 부담금을 그간의 주요 자재(시멘트, 전선, 철강 등) 비용 상승률을 반영하여 현실화를 추진

○ 금년부터 3년에 걸쳐,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·시행키로 함

* 2003년 표준시설부담금 단가 상향 조정 이후 '11.9월까지 생산자물가 변동으로 표준시설부담금의 69.4% 인상요인이 있음

바. 선택형 최대피크 요금제 시범 도입

□ 연중 최대피크 발생일에 고율의 할증 요금을 부과하고, 평상시 요금을 할인해 주는 선택형 요금제

○ 금년 동계 기간('12.11월-'13.2월) 중 시범 도입 예정이며, 선택 요금의 적용 대상 및 요금 적용에 관한 구체사항은 추후 약관 세칙으로 정할 예정

3. 보완대책

□ 기초생활수급자·장애인·상이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최소전력 사용량(약 110kWh/월)을 계속해서 보장
(현행대로 월 8,000원 정액감면 하고, 차상위계층은 2,000원 정액감면)

* 형광등 5개, TV(30인치), 냉장고(600리터), 세탁기(10kg) 사용시 전력량

□ 또한 정부는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을 위해 전력 다소비 제품 효율관리 강화, 고효율 에너지절약형 전기제품(LED조명, 고효율 인버터 등) 보급촉진, 전력저장장치(ESS), 최대전력 관리장치 등 에너지고효율 제품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

□ 한편 정부는 한전이 금년 중 추진키로 한 1.1조원(발전자회사 포함)의 자구노력과 별개로, 향후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 노력을 요구키로 함

4. 전기요금 조정 효과

□ 지식경제부는 이번 요금인상을 통해 소비자 물가는 0.056%p, 생산자 물가는 0.128%p, 제조업 원가는 0.07%p 상승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,

* 주택용 전기요금 1% 인상시 소비자물가 연간 0.0208%p 상승(통계청),
* 산업용·일반용·주택용 전기요금을 각각 1% 인상시 생산자물가 연간 0.0274%p 상승(한국은행)
* 제조업 원가 중 전력비 비중은 1.17%(한국은행 기업경영 분석, '11년)

○ 도시 가구는 월평균 1,200원(월 전력사용량 301.8kWh), 산업체는 월평균 32.7만원(월 전력사용량 5.9만kWh)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

□ 또한 금번 전기요금 조정을 통해 하계전력 피크를 약 85만kW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